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1월 5일 (제122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거의 10년 만에 일본 지교회를 둘러봤다. 주로 남미 지역 복음화에 주력했고, 코로나까지 겹쳐 정작 지적인 일본에는 자주 가지 못했다. 오랜만에 가보니 지교회도 많이 변해 있었지만, 가장 놀란 일은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서둘러 천국에 가고 없다는 것이었다. 죽을 뻔 순서가 없다더니만... 이에 내게 든 생각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였다.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생각해서 미루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었던 목사와 성도들을 그냥 보냈다는 자책이 든다.

내일은 평생 내일이다. 내일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야행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거하며 밤새 구박을 받는단다. 그는 서러운 눈물을 삼키며 '내일이면 집 지오리'하고 구슬프게 노래한다. 그러나 야행조는 평생 집을 못 짓는단다. 내일, 내일 하다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내일 말고 오늘 도와주고, 사랑할 사람은 오늘부터 사랑하자.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여유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하지' 하면 늦는다. 성경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고 말씀하지 않는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눅 12:40)는 말씀이 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인즉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고 있으라'는 뜻이다. 그러면 인자가 언제 오시든 내 할 일을 다했기에 들림받는다는 것이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는 말씀도 '지금 은혜받으라'는 말씀이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은혜받고, 지금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마귀는 언제나 '내일', '조금 있다가'라고 유혹한다.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 오늘 하라.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세력과의 전쟁으로 지구촌이 시끄럽다. 중동 정세의 변화는 늘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일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또 유튜브를 비롯하여 말세의 징조라니 떠들며 흑세무민 하는 거짓 예언들이 넘쳐나고 있다. 속지 말아야 한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절대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관하여 흑 영으로

산으로 도망할찌어다'(마24:11~16).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5~18).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24:4~8).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답은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전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사실이기애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예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인천예수중심교회 주일예배 광경)

나 흑 말로나 흑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등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2:1~3).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24:29~31).

물론 분명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합니다(왕상22:20~23).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신은 배를 채우는 세상 물질이기에(벧3:19)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비록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이 땅을 떠나 공중에서 재림 예수를 영접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서울교회 예배 안내

88체육관 사정으로 인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교육관과 각 기도처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6:13~17)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레나 마리아, 스웨덴 태생인 그녀는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기에, 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정상아와 똑같이 양육했고, 그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신앙을 주입했습니다.

그 교육과 신앙을 힘입어 그녀는 정상인처럼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많은 것들을 해나갔습니다. 심지어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 스웨덴 대표로 나가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로 스펀클림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나 마리아의 인생을 몇 줄의 글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울곧은 신앙으로 그가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고, 세계적인 복음가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고군분투했을 그의 삶, 눈물겨운 노력을 어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정상인의 삶을 살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넘어서며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게으름은 멸망으로 이끄는 악이다

여러분, '노력'이 가장 무서운 무기인 것은, 노력 속에는 엄청난 부지런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레나 마리아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사지가 멀쩡하지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요? 그런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오직 당신이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칠십 평생을 살면서 게으른 자가 잘 사는 것을 못 봤고, 게으른 자가 성공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 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 12:24)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저에게는 두 절친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노력'. 이 두 친구는 제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떠날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붙잡기 위해서 엄청

나게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했고,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단에서 학잡을 자며 기도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 4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도 다방면으로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73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중심교단이 이뤄진 게 아닙니다. 남보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이란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깊이 빠져들 뿐이지요. 옛

말에 '앞으려면 높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은 마약과도 같아서 떨쳐버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 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 22:29).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업 파트너를 구하고 있습니까?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집안을 볼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시 말해서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살펴야 합니다. 게으른 남편을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게으른 아내를 만나면 가족 모두가 평생 피폐되게 살게 됩니다. 동업자가 게으르면요? 직원이 게으르면요? 성경은 그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느 주인이 각자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감추어 두었나이다"(마 25:24~25)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노한 주인이 핑계나 대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며 '바깥 어둔 데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마25:30). 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로 비유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게을러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를,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눅19:27)고까지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했고, '원수'라고 했습니다. 왜냐? 게으름은 육은 물론이고, 영혼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이요, 악은 곧 마귀입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전매특허입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저 천천히 하라고, 내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도착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만들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

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7~28).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우중충하게 살고, 왜 다스림을 당하고, 왜 남에게 빌리러 가고, 왜 비실대며 삽니까? 게을러서입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정보도 필요하고, 기술이나 스펙도 있어야 하고, 법을 알아야 그 안에서 자유하건만 게을러서 이것도 저것도 안 하니 어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거리에 사자가 있다며 핑계만 대고 있을 겁니까? 제가 10년 만에 일본에 가보니 27개 교회 중에 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많겠지요. 그러나 저는 단 하나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게을러서다.' 성경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들의 몫이다

여러분, 이제라도 게으름이란 블랙홀에서 나오고, 게으름이란 마약을 끊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자 과원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어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게으름 피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만 부지런을 떨어도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1년만 부지런히 기도해보세요. 1년만 부지런히 책을 읽어보세요. 1년만 부지런히 운동해보세요. 분명할 결과가 나옵니다. 1년을 부지런 떨다 보면 부지런이 습관이 되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손발보다 머리를 부지런히 쓰는 것이 더욱 유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섯딩어로 옛을 바꿔 먹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낮이나 호미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아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머리가 부지런히 돌아가야만 가능하고, 어떤 일에 부지런히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내 인생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닌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런을 떨어 내 인생을 명작, 걸작으로 만들어봅시다. 할렐루야!

:: 객원칼럼 ::

삭개오의 축복

‘영접’이란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맞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 때문에 그를 영접하려면 왕이라도, 부자라도, 학자라도 마구간까지 낮아지는 수준에 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으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까지 내려가야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를 경험할 수도,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그분이 낮은데 계시다고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영접할 수 없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키가 작고 세리장으로 돈만 아는 지독한 노랭이로 보인다. 당시 로마 정부는 머리 좋고 지독한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게 하였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의 돈을 긁어모으는 자칭 왕초 세리장이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고, 키가 작으니 뿔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발견되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므로 너무 기뻐서 진수성찬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했다. 예수께서 축복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이 삭개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얼마나 기뻐던지 말한다. 첫째,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갑자기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둘째,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재산은 전부 남에게 토색한 것이었기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린 판국이 되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순간에 여태까지 섬기던 다른 하나님인 돈을 버려버리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모셔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종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주님의 부유로서 부유해질 것이냐, 내 실력으로 부유해질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내 실력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 종말이 부득불 올 때면 하나님 앞에서 별수 없이 그것 다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나니”(마11:12). 천국을 빼앗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삭개오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창12:1~3)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혈통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갈3:7). 할렐루야!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성경에세이 ::

이웃을 내 몸처럼!

여보게!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어느 목사가 내게 “목사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제 실력이 늘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네.
맞는 말이라네.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 실력이 느는 법이지. 남의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지고, 남 앞에 불을 밝혀주면 내 앞도 밝아지는 원리와 같은 게야. 어디 그뿐인가.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 삶도 윤택해지고, 남을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그러나 남을 진흙탕에 빠지게 하려면 내가 먼저 진흙을 묻혀야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내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을 뽑게 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 먼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법!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 아량을 베풀고, 남을 위해 참는 게 아니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은 너는 손해 보고 황량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좋으면 이웃도 좋고, 이웃이 좋으면 너도 좋다’는 상부상조의 정신,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뜻하신 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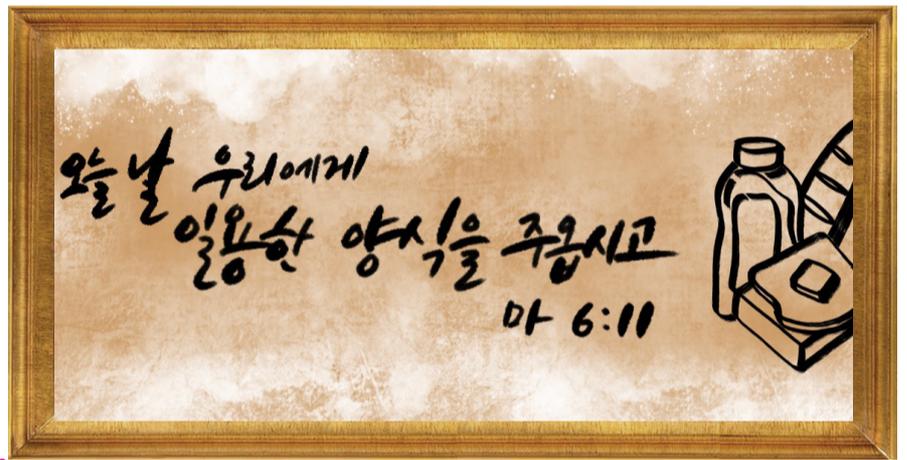
여보게!
멕시코 집회에 갔을 때였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느 여인을 그의 어머니가 데리고 왔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군. 나는 그 여인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했네. 그러자 그녀는 그 와중에도 절대 용서 못한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며 절규했네. 나는 그 여인을 안고 오랜 시간 찬양을 했지. 그랬더니 그녀의 강박했던 마음이 녹았는지 그녀가 울기 시작했네. 나는 그녀에게 ‘그를 용서해라. 그를 용서해야 네가 산다.’라고 재차 말했더니 계속 울던 그녀가 ‘이제 용서하겠다’고 했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뭐냐. 그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해진 거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는 성경 말씀은 진리라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면 내가 더욱 배려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혜택을 얻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지.
아름다운 사회와 가정,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먼저 행동할 때 이뤄진다는. **봉우**

:: 찬양과 경배 ::

나만 아는 기쁨, 배려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있다가 삼각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편의점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친구들까지 다 사줄 수 있으면 가서 사 오고, 아니면 참았다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사 먹으렴. 먹고 싶지만 못 먹는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이 이해됐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득된 작은 배려가 쌓여 지금 저는 주변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첫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상기시켜주시고, 1세대의 죽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줍니다. 2세대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려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을 기쁘고 풍족하게 해주고, 또한 더 여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은 꼭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변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조금의 노력으로, 배려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윤예녹 생도**



:: 생명의 말씀 ::

예수님의 향기

문산교회로 발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9인승 새 차를 허락해주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교회 앞에 차를 해놓았는데, 1층 정육점 배달차가 후진 주차를 하면서 내 차에 접촉사고를 냈다. 정육점에서 고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주머니께서 친구 차를 빌려 일을 하고 계셨는데, 본인 차도 아니니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곤란한 상황이었다.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정식 서비스센터 정비공장에 의뢰해보니 5~60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 이는 시간제 배달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께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 나는 아무 걱정이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리고, 부분적으로 복원 도색하는 전문업체에 맡겨 적은 비용으로 차를 수리했다. 물론 비용은 받지 않았다. 그 후 아주머니는 목사님이신 줄 몰랐다면 감사와 사과의 표시로 소고기를 선물로 주셨고,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라면 우리 아이들도 보내고 싶다고 거듭 인사를 하셨다. 얼마 전에는 동네마트에 들러 주차를 해놓았는데, 한 할머니께서 카트를 경사로

에 세워두고 남편의 차에 장 본 물건을 옮겨 실으려다 그만 카트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가속도가 붙었는지 충격이 컸고, 나도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차로 왔다. 운전석 뒤쪽 자동문이 움푹 들어가 찌그러졌다. 그런데 남편 분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시고, 할머니는 어떻게든 책임을 덜 지고 사고를 무마하려고만 하셨다. 차가 굵힌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경찰이 왔는데, 교통사고라 할 수도 없었고 재물 손괴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는 그들의 태도가 많이 못마땅하고 섭섭했지만 먼저 할머니께 알아서 수리할 테니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두분의 태도가 바뀌었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시고는 연락처까지 주시며 혹시 비용이 많이 나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결국 이 사고는 두 분께 예수님을 전하며 잘 마무리되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니 감사할 뿐이다. **장순천 목사**
sudden2000@naver.com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빛이 되리라 ::

들인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돌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걷지 못해 속을 태우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또래보다 말이 느린 조카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엄마와 이모를 걱정시키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초등학교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뛰라고, 그만 좀 떠들라고 하루에 수십 번 잔소리를 듣는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더디고 느려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잘 걷고 잘 말하며 잘 살아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안달복달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죠. 시간만이 해결하고 성장시키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두세 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생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시간이 지나야만 해요.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해 사회초년생 때 저는 아주 조급했습니다. 카피라이터가 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마다 막막했거든요. 1년 치 경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매번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했는데도 결과물은 제 것이 가장 별로였습니다. 선배들처럼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호되게 질책하는 날이 빈번했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주눅들대로 주눅 들어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카피라이터 선배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배처럼 카피를 잘 쓸 수 있냐고요. 그러자 선배가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내 실력과 똑같다면 내가 쌓아온 시간은 뭐가 되니?” 그때 이 말이 너무 야속하게만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심으로 공감합니다. 당시 2년 차였던 제가 9년 차였던 선배와 똑같은 실력이라면, 선배가 7년 동안 들인 노력은 뭐가 되나요. 선배는 덧붙여 한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광고 카피를 출력해서 무조건 손으로 따라 써보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광고, 외국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인쇄 광고할 것 없이 좋아보이는 문장을 모으고 출력해서 따라 썼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문장 3개를 3번씩 따라 쓰기.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과가 되었죠. 솔직히 이게 도움 될 것 같진 않았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계속 필사했는데, 쓰다 보니 문득 문장 안에 담긴 통찰력이라든지 비유, 표현력, 짧은 문장에서 반전을 주는 센스 등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을 가랑비에 옷 젖듯 습득했습니다. 해마다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자 제법 실력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을 들여 직접 부딪치고, 부대끼고, 좌절하고, 해

내고 성취한 실력은 잠깐의 재능이나 요령만으로는 가질 수 없더라고요. 한두 번 잘할 수 있지만 꾸준히 잘하려면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의 경력에 11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졌을 즈음, 어느 카피라이터 후배가 물더군요. “선배는 처음부터 카피 잘 쓰셨죠? 저는 언제쯤 선배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선배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후배에게 받다니, 역시 시간이 지나고 불 일입니다. 요사이 저는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토크라던가 강연이라던가요. 최근엔 비대면 글쓰기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설레기보다는 움츠러드는 타입이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되뇌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자고. 지금은 어설피고 울렁대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분명 나아질 거라고 격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할 수 없는 일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달복달할 필요 없죠. 우리가 들인 시간은 어디로 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으니까요. 그러니 갈수록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하나님의 선물 ‘페이버’

얼마 전 하형록 회장님의 책 ‘페이버’를 읽었다. ‘팁하스’란 이름의 주차빌딩 건설회사를 미국에서 운영 중이며 목회도 함께하시는 그분의 간증을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 책에선 페이버(Favor)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와 축복,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 좋아서 주는 선물을 ‘페이버’라고 칭한다. 과거에 그는 심장에 큰 병이 있어서 심장 이식을 수년째 기다리던 중, 죽기 한 달 전에 가까스로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을 구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심장을 옆방 환자에게 주면 그 사람도 살 수 있을 텐데.’라는 내용이였다. 그 환자는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며칠 내에 사망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그때 그가 결심한다. 성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기회가 왔다고,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본인에게 온 심장을 옆 환자에게 준다. 결국 그 환자는 살게 되었고, 기적같이 한 달 안에 본인에게 맞는 심장을 또 구해서 본인도 기적같이 살게 된다. 성경 말씀대로 행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된 것이다.

퇴원 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작은 사업체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애쓰는 그 회사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주신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회사라고.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번 돈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성장했다고 말한다.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꿈꾸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성공할 수 있는지 알기 원하는 분은 꼭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비즈니스와 신앙을 분리하는 현 세상 풍토에서 크리스천 사업가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귀감이 되는 책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생방송 (노랑진 교육관)

:: 주님을 향하여 ::

구덩이를 벗어나

차갑고 어두운 구덩이, 사방 어디를 보아도 어둠뿐.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들려오는 대답은 없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넣던 형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깊은 절망감이 엄습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채색옷을 차려입고 아버지를 대신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나아갔다. 그런 그를, 형들은 옷까지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것이다. ‘왜?’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수록 가슴은 무너졌다. 두려움과 혼자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눈을 들자, 까만 밤하늘 위로 열려있는 하늘 문이 보였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삶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채색옷도 빼앗기고 부모도, 형제도 모두 잃고 나서야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였다. 자신을 보호한다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사막의 어둠 속에 홀로 패셔아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것이다. 살다 보면 이처럼 예기치 못한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어쩔

도리 없이 만나게 되는 구덩이다. 다행스럽게 잘 피할 때도 있겠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도 있기 마련이다. 나 또한 이러한 구덩이를 경험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구덩이를 벗어난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구덩이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다. 구덩이라는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서는 살 수가 없다. 구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바꿀 힘도 없다. 그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견디고 버텨낼 뿐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무서운 홍수로부터 지켜주시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일 년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태풍과 홍수를 견뎌야만 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무리 크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뎌야 할 고난은 온전히 우리 몫이다. 살기 위해서, 구덩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눈앞의 상황을 견뎌야 한다. 모든 것에

서 마음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우울증을 앓는 아들의 곁을 지키는 일은 구덩이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아프고 외롭고 무섭다. 하지만 난 엄마였다. 아픈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다. 매일 밤, 하나님께 나는 엄마인데, 아픈 저 아들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아들 사진과 방문에 대고 귀신을 쫓고,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에게 주는 물컵에 대고 기도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천 번 부르면 만나 주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천 번을 불렀다. 그런 내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아들과 나는 이제 구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23:4).

박영임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